

일 지역 대학생의 성격유형

MBTI Personality Typ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an Area

장현정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Hyun-Jung Jang(jangah74@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일 지역 대학생의 성격유형을 분석하여 선호경향에 따른 학습법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2017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K대학교 10개 학과 695명을 대상으로 MBTI form M[®] 을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여 자동채점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16가지 성격유형, 성격별 심리기능 및 기질에 대해 기술통계,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의 선호경향의 차이는 판단기능에서는 남학생은 T유형(사고형)이, 여학생은 F유형(감정형)이 높은 선호도로 나타났으며 행동양식 및 생활양식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은 J유형(판단형)이, 남학생은 P유형(인식형)이 높은 선호도로 나타났다. 또한 학과별 및 계열별에 따라 성격유형, 심리기능 및 기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성격유형이 성별, 학과 및 계열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선호경향을 반영한 학습법에 관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중심어 : | 일 지역 대학생 | MBTI | 성격유형 | 선호학습 |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to provide useful preliminary data that is helpful for self-initiated learning through a preference trend-based learning method by analyzing the personality types of university students in an area. In this study, the self-administered MBTI form M[®] test was performed on 695 students of 10 departments at K University, from September 18 to 22, 2017, using an automatic scoring system.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test, using the SPSS Win 22.0 Program, to sort the target students into one of 16 different personality types and examine psychological function and temperament by their personality. Differences in personality type preference by gender were as follows: for judging function, the male students had a strong preference for the T type (thinking type) while the female students showed a high preference for the F type (feeling type), and in the case of the pattern of behavior and lifestyle, the male students and the female students had a strong preference for the P type (perceiving type) and the J type (judging type), respectively.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each major and each department in personality type, psychological function and temperament. In conclusion, personality type was found to vary by gender, major and department.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 manual for learning methods reflecting individual preference.

■ keyword : | University Students in an Area | MBTI | Personality Types | Learning Preference |

* 본 논문은 경운대학교 학술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01월 24일

수정일자 : 2018년 03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3월 12일

교신저자 : 장현정, e-mail : jangah74@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이 고교시절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지연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입식 위주의 고등학교 생활과는 달리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필요한 대학생활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 즉, 학업에 대한 자신감 저하, 학습의욕 부진, 과제나 교과에 대한 어려움, 팀 과제, 시간 관리의 부재, 완벽주의 성향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2].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대학 학위 이상의 고학력과 어학연수 등의 부가적인 스펙들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지연은 학업중단(휴학)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3].

대학생의 경우 진로 및 취업을 위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해 자발적으로 학습관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역량은 학업성취 및 학습성과와 관련이 있다[4]. 부적응으로 인한 학습 부진은 단순한 학업 실패뿐 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 부적응까지 겪게 될 만큼 학업은 중요한 부분이다[1][5].

2009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대학생의 핵심역량 진단(K-CESA: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의 현재 개인 핵심능력 및 역량정도를 파악하고, 사회적 변화와 기업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자기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6].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핵심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 학습태도, 학과 및 학습만족도, 교수와의 관계, 학습동기, 능동적 태도 등이 있다[7-9]. 이에 대학에서는 사회인재를 배출함에 있어 대학생활에서부터 주요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학업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을 위한 학습전략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으며[1], 지도교수의 상담을 통해 학습태도나 개인의 학습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에 대해 지도를 하고 있다. 그 외 K-CESA를 통해 몇몇 대학들은 핵심역량강화 교육지원시스템, 학사경고제도를 위한 지원서비스, 핵심 역량별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6]. 하지만 학생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 매뉴얼을 갖추고 지도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자신의 선호경향에 맞는 학습법(학습스타일)이 계획된다면 학습동기가 향상되고 그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10].

학습법(학습스타일)이란 학습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 자신이 습관화되거나 선호하는 방향으로 학습활동을 선택하고 정보처리하게 되는 학습양식이다[11]. 사람마다 학습법이 다른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식기능과 인식한 내용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판단기능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12]. 이에 개인이 선호하는 학습법을 적용한다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학습동기, 학습 효능감, 학습태도 등이 있으며 이는 성격유형에 따라 달라진다[13][14]. 학업성취도의 요인이나 관계분석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학습자의 선호방식에 따른 학습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동일한 교수법이나 학습법보다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성격특성에 따른 학습법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15]. 즉, 교수자는 학습자의 개인 선호 경향에 따른 학습법을 이해하고 교수법을 적용하여 지도할 때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16].

강은주, 임규혁, 한주희[17]는 성격에 따라 학습동기가 영향을 받고 학습동기 및 학습유형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으며 최민영[18]은 미용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성격에 따라 학업수행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성격(Personality)은 개인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중

하나이며, 성격의 선호경향은 교육이나 환경 등의 어떠한 영향을 받기 이전에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심리경향이다[19].

성격유형에 관한 것 중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C. G.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바탕으로 K. C. Briggs와 I. B. Myers가 고안한 성격유형지표이며 선천적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다. 이는 성격에 대해 개인의 선천적 심리유형 파악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는 것이며 MBTI 선호경향에 따른 성격의 분류는 4가지 기본적 선호경향을 가진다[20]. 즉, 에너지의 방향은 주의, 초점에 따른 외향(Extraversion, 이하 E), 내향(Introversion, 이하 I)과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기능의 감각(Sensing, 이하 S), 직관(iNtuition, 이하 N)으로 구분된다. 또한 일에 대한 결정이나 선택에 관여하는 판단기능의 사고(Thinking, 이하 T)와 감정(Feeling, 이하 F), 삶의 양식으로 표현되는 판단(Judging, 이하 J)과 인식(Perceiving, 이하 P)으로 분류된다[12]. 이들 4쌍의 선호지표를 조합하여 16가지 성격유형과 4가지 심리기능 및 4가지 기질로 구성된다. 심리기능은 인식기능(S유형과 N유형)과 판단기능(T유형과 F유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의사결정 유형별로 감각적 사고형(Sensing Thinking, 이하 ST), 감각적 감정형(Sensing Feeling, 이하 SF), 직관적 사고형(iNtuition Thinking, 이하 NT), 직관적 감정형(iNtuition Feeling, 이하 NF)으로 구성된다[21-23]. 또한 4가지 심리기질은 keirsey의 기질론에 따라 예술가 기질(Sensing Perception, 이하 SP), 보호자 기질(Sensing Judgement, 이하 SJ), 합리론자 기질(iNtuition Thinking, 이하 NT), 이상가 기질(iNtuition Feeling, 이하 NF)로 구성된다[13][23].

MBTI와 관련된 대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연구로는 스트레스와 학교적응[23][24], 학업성취도[25][26], 핵심역량[21]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선호성격과의 관계만 조사되었을 뿐 이들의 선호도와 관련된 학습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학습법을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지역 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각 성격유형별에 적합한 학습법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MBTI 16가지 성격유형을 확인한다.
- 2) 대상자 성격의 심리기능 유형을 확인한다.
- 3) 대상자 성격의 기질유형을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성격의 선호경향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확인한다.
- 5) 대상자의 선호경향의 분명도를 확인한다
- 6) 학과 및 계열별 MBTI 성격유형, 심리기능, 기질 및 선호유형의 차이를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대학생의 MBTI 16가지 성격유형, 성격의 선호경향의 분명도, 각각의 4가지 심리기능 및 기질유형에 대한 학과별 및 계열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K대학 내 강점발전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한 10개 학과(의료경영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항공관광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디지털영상학과, 보건바이오학과, 안경광학과, 건축학과, 경호학과) 총 695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시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MBTI form M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과계열 분류는 교육부(진로정보망 커리어 넷)에서 공시한 대학계열을 참조로 하여 참여 학과를 3개 계열인 사회계열(의료경영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항공관광학과), 공학계열(멀티미디어학과, 디지털영상학과, 보건바이오학과, 안경광학과, 건축학과), 예체능(경호학과) 계열로 분류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결과 분석 시, 대

상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 익명성이 확보되었다.

3. 연구도구

3.1 MBTI form M®

본 연구는 Briggs와 Myers가 개발한 성격유형 검사 중 MBTI form M형® 자동채점용을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총 9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MBTI는 네 쌍의 선호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너지 방향 및 주의 초점을 나누는 E유형, I유형과, 정보를 수집하는 양상에 따라 S유형, N유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T유형과 F유형, 생활양식에 따라 J유형, P유형으로 구분된다[20]. MBTI의 선호지표는 E-I 21개 문항, S-N 26개 문항, T-F 24개 문항, J-P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개만의 지표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27]. MBTI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EI .93, SN .91, TF .92, JP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EI .92, SN .85, TF .86, JP는 .91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 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2.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MBTI 16가지 성격유형, 성격 선호경향의 분명도, 심리 기능 및 기질유형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학과 및 계열별에 따른 MBTI 16가지 성격유형, 심리 기능, 기질 및 선호유형의 차이와 선호경향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로는 남자가 365명

(52.5%), 여자가 330명(47.5%)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로는 20세 이상 - 25세 미만이 609명(87.6%)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체 학과별 응답자 분포로는 경호학과 132명(19.0%), 사회복지학과 130명(18.7%), 의료경영학과 104명(15.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95)

변수	구분	n	%
성별	남	365	52.5
	여	330	47.5
나이	19세 이하	15	2.2
	20세 이상-25세 미만	609	87.6
	25세 이상-30세 미만	68	9.8
	30세 이상	3	0.4
학과	의료경영학과	104	15.0
	경찰행정학과	80	11.5
	사회복지학과	130	18.7
	항공관광학과	35	5.0
	멀티미디어학과	41	5.9
	디지털영상학과	32	4.6
	보건바이오학과	40	5.8
	안경광학과	61	8.8
	건축학과	40	5.8
	경호학과	132	19.0

2. 대상자 성격의 선호분명도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성격의 선호 분포도는 E유형 432명(62.2%), I유형 263명(37.8%), S유형 435명(62.6%), N유형 260명(37.4%), T유형 277명(39.9%), F유형 418명(60.1%), J유형 259명(37.3%), P유형 436명(62.7%)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격유형의 확실한 선호 분명도를 나타내는, '분명'과 '매우 분명'의 경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유형 215명(30.9%), I유형은 109명(15.7%)으로 나타나 E유형이 확실한 선호지표로 나타났다. S유형의 '분명'과 '매우 분명'의 경우 115명(16.6%), N유형은 46명(6.6%)으로 나타나 S유형이 선호지표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T유형은 41명(5.9%), F유형은 218명(31.3%)이 '분명'과 '매우 분명'의 응답으로 나타나 F유형이 확실한 선호지표로 나타났으며 J유형은 126명(18.2%), P유형은 230명(33.1%)이 '분명'과 '매우 분명'으로 나타나 P유형이 확실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대상자 성격 선호경향에 따른 성별의 차이

대상자의 성격 선호경향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판단기능의 차이를 나타내는 T-F유형에서 T유형은 남학생이, F유형은 여학생이 높은 선호도로 나타났다(χ²=14.478, p<.001), 행동양식 및 생활양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J-P유형에서는 J유형은 여학생이, P유형은 남학생의 선호경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χ²=8.930, p=.003)[표 3].

표 2. 선호경향의 분명도 (N=695)

변수	구분	n	%
E	약간	93	13.4
	보통	124	17.8
	분명	128	18.4
	매우분명	87	12.5
	총합계	432	62.2
I	약간	76	10.9
	보통	78	11.2
	분명	62	8.9
	매우분명	47	6.8
	총합계	263	37.8
S	약간	81	11.7
	보통	239	34.4
	분명	102	14.7
	매우분명	13	1.9
	총합계	435	62.6
N	약간	93	13.4
	보통	121	17.4
	분명	44	6.3
	매우분명	2	0.3
	총합계	260	37.4
T	약간	124	17.8
	보통	112	16.1
	분명	37	5.3
	매우분명	4	0.6
	총합계	277	39.9
F	약간	75	10.8
	보통	125	18.0
	분명	174	25.0
	매우분명	44	6.3
	총합계	418	60.1
J	약간	53	7.6
	보통	80	11.5
	분명	95	13.7
	매우분명	31	4.5
	총합계	259	37.3
P	약간	93	13.4
	보통	113	16.3
	분명	183	26.3
	매우분명	47	6.8
	총합계	436	62.7

표 3. 성격 선호경향에 따른 성별의 차이 (N=695)

변수	구분	n	%	χ²	p
E	남	227	32.7	.000	.985
	여	205	29.5		
I	남	138	19.9	1.990	.182
	여	125	18.0		
S	남	219	31.5	14.478	.000
	여	216	31.1		
N	남	146	21.0	8.930	.003
	여	114	16.4		
T	남	170	24.5		
	여	107	15.4		
F	남	195	28.1		
	여	223	32.1		
J	남	117	16.8		
	여	142	20.4		
P	남	248	35.7		
	여	188	27.1		

4. 대상자의 학과 및 계열별에 따른 성격유형, 심리기능, 기질 및 선호유형

각 학과별 대상자의 성격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4]. MBTI 16가지 성격유형 중 전체적으로 ESTP(외향성 감각형)가 97명(14%), ENFP(외향성 직관형)가 82명(11.8%)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성격별 심리기능은 SF(감각적 감정형)기능이 242명(34.8%), 기질유형은 SJ(감각적 판단형)기질이 241명(34.7%)으로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학과별 성격의 선호분포도를 살펴보면 의료경영학과는 ENFP와 ENTP(외향성 직관형)가 각각 14명(2.0%), 경찰행정학과 ESTP 13명(1.9%), 사회복지학과 ESTP 25명(3.6%), 항공관광학과 ENTJ(외향성 사고형) 7명(1.0%)이 각 학과에서 높은 선호도의 성격유형을 나타냈다. 멀티미디어학과의 경우는 ISTP(내향성 사고형)와 ESTP가 각각 6명(0.9%), 디지털영상학과 INFP 5명(0.7%), 보건바이오학과 ENFP 6명(0.9%), 안경광학과 ESTP(외향성 감각형) 15명(2.2%), ENTP(외향성 직관형) 6명(0.9%), 건축학과 ESTP 7명(1.0%), 경호학과 ENFP 23명(3.3%)이 각 학과에서 높은 선호도의 성격유형으로 나타났다. 성격별 심리기능으로는 ST기능에서 높은 성향은 디지털영상학과와 건축학과였으며 NF기능의 성향이 높은 학과는 멀티미디어학과, 안경광학과로 나타났다. 그 외 경찰행정, 경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경

표 4. 학과별 성격유형, 심리기능, 기질 및 선호유형

(N=695)

변수	구분	의료경영	경찰행정	사회복지	항공관광	멀티미디어	디지털영상	보건바이오	안경광학	건축	경호	전체	x ²	p
		n(104) n(%)	n(80) n(%)	n(130) n(%)	n(35) n(%)	n(41) n(%)	n(32) n(%)	n(40) n(%)	n(61) n(%)	n(40) n(%)	n(132) n(%)			
성격유형	INFJ	3(0.4)	3(0.4)	2(0.3)	2(0.3)	3(0.4)	4(0.6)	4(0.6)	4(0.6)	2(0.3)	10(1.4)	37(5.3)	164.680	.042
	ENFJ	12(1.7)	9(1.3)	8(1.2)	1(0.1)	1(0.1)	3(0.4)	1(0.1)	5(0.7)	5(0.7)	15(2.2)	60(8.6)		
	INFP	7(1.0)	7(1.0)	17(2.4)	2(0.3)	3(0.4)	5(0.7)	1(0.1)	3(0.4)	3(0.4)	14(2.0)	62(8.9)		
	ENFP	14(2.0)	10(1.4)	11(1.6)	5(0.7)	3(0.4)	2(0.3)	6(0.9)	5(0.7)	3(0.4)	23(3.3)	82(11.8)		
	INTJ	10(1.4)	7(1.0)	11(1.6)	0(0.0)	1(0.1)	2(0.3)	2(0.3)	3(0.4)	1(0.1)	11(1.6)	48(6.9)		
	ENTJ	10(1.4)	6(0.9)	9(1.3)	7(1.0)	2(0.3)	0(0.0)	3(0.4)	4(0.6)	3(0.4)	6(0.9)	50(7.2)		
	INTP	7(1.0)	3(0.4)	8(1.2)	1(0.1)	3(0.4)	1(0.1)	3(0.4)	2(0.3)	1(0.1)	5(0.7)	34(4.9)		
	ENTP	14(2.0)	9(1.3)	10(1.4)	3(0.4)	2(0.3)	2(0.3)	1(0.1)	6(0.9)	4(0.6)	11(1.6)	62(8.9)		
	ISFJ	1(0.1)	1(0.1)	1(0.1)	3(0.4)	3(0.4)	4(0.6)	1(0.1)	1(0.1)	2(0.3)	4(0.6)	21(3.0)		
	ESFJ	5(0.7)	4(0.6)	4(0.6)	2(0.3)	2(0.3)	1(0.1)	2(0.3)	4(0.6)	3(0.4)	7(1.0)	34(4.9)		
	ISFP	0(0.0)	0(0.0)	2(0.3)	0(0.0)	1(0.1)	1(0.1)	1(0.1)	1(0.1)	0(0.0)	3(0.4)	9(1.3)		
	ESFP	4(0.6)	1(0.1)	1(0.1)	2(0.3)	0(0.0)	1(0.1)	3(0.4)	2(0.3)	2(0.3)	4(0.6)	20(2.9)		
	ISTJ	0(0.0)	0(0.0)	4(0.6)	1(0.1)	2(0.3)	0(0.0)	0(0.0)	0(0.0)	1(0.1)	1(0.1)	9(1.3)		
	ESTJ	2(0.3)	3(0.4)	5(0.7)	4(0.6)	3(0.4)	0(0.0)	4(0.6)	2(0.3)	0(0.0)	4(0.6)	27(3.9)		
	ISTP	3(0.4)	4(0.6)	12(1.7)	0(0.0)	6(0.9)	4(0.6)	3(0.4)	4(0.6)	3(0.4)	4(0.6)	43(6.2)		
	ESTP	12(1.7)	13(1.9)	25(3.6)	2(0.3)	6(0.9)	2(0.3)	5(0.7)	15(2.2)	7(1.0)	10(1.4)	97(14.0)		
심리기능	ST	36(5.2)	24(3.5)	28(4.0)	7(1.0)	9(1.3)	10(1.4)	9(1.3)	17(2.4)	12(1.7)	41(5.9)	193(27.8)	49.148	.006
	SF	41(5.9)	30(4.3)	48(6.9)	14(2.0)	9(1.3)	9(1.3)	12(1.7)	15(2.2)	10(1.4)	54(7.8)	242(34.8)		
	NT	10(1.4)	6(0.9)	8(1.2)	7(1.0)	6(0.9)	7(1.0)	7(1.0)	8(1.2)	7(1.0)	18(2.6)	84(12.1)		
	NF	17(1.0)	20(2.9)	46(6.6)	7(1.0)	17(2.4)	6(0.9)	12(1.7)	21(3.0)	11(1.6)	19(2.7)	176(25.3)		
기질	SP	41(5.9)	25(3.6)	38(5.5)	11(1.6)	8(1.2)	5(0.7)	9(1.3)	15(2.2)	9(1.3)	33(4.7)	194(27.9)	55.009	.001
	SJ	36(5.2)	29(4.2)	38(5.5)	10(1.4)	10(1.4)	14(2.0)	12(1.7)	17(2.4)	13(1.9)	62(8.9)	241(34.7)		
	NT	10(1.4)	6(0.9)	8(1.2)	7(1.0)	6(0.9)	7(1.0)	7(1.0)	8(1.2)	7(1.0)	18(2.6)	84(12.1)		
	NF	17(1.0)	20(2.9)	46(6.6)	7(1.0)	17(2.4)	6(0.9)	12(1.7)	21(3.0)	11(1.6)	19(2.7)	176(25.3)		
선호유형	E	73(10.5)	55(7.9)	73(10.5)	26(3.7)	19(2.7)	11(1.6)	25(3.6)	43(6.2)	27(3.9)	80(11.5)	432(62.2)	25.798	.002
	I	31(4.5)	25(3.6)	57(8.2)	9(1.3)	22(3.2)	21(3.0)	15(2.2)	18(2.6)	13(1.9)	52(7.5)	263(37.8)		
	S	77(11.1)	54(7.8)	76(10.9)	21(3.0)	18(2.6)	19(2.7)	21(3.0)	32(4.6)	22(3.2)	95(13.7)	435(62.6)	24.305	.004
	N	27(3.9)	26(3.7)	54(7.8)	14(2.0)	23(3.3)	13(1.9)	19(2.7)	29(4.2)	18(2.6)	37(5.3)	260(37.4)		
	T	46(6.6)	30(4.3)	36(5.2)	14(2.0)	15(2.2)	17(2.4)	16(2.3)	25(3.6)	19(2.7)	59(8.5)	277(39.9)	13.871	.127
	F	58(8.3)	50(7.2)	94(13.5)	21(3.0)	26(3.7)	15(2.2)	24(3.5)	36(5.2)	21(3.0)	73(10.5)	418(60.1)		
	J	47(6.8)	29(4.2)	50(7.2)	18(2.6)	14(2.0)	7(1.0)	17(2.4)	20(2.9)	12(1.7)	45(6.5)	259(37.3)	11.790	.225
	P	57(8.2)	51(7.3)	80(11.5)	17(2.4)	27(3.9)	25(3.6)	23(3.3)	41(5.9)	28(4.0)	87(12.5)	436(62.7)		

영학과, 항공관광학과는 SF기능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보건바이오학과는 SF기능과 NF 기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격별 기질유형에서는 SP(감각적 인식형)기질은 의료경영학과와 항공관광학과에서 높은 선호도로 나타났으며 SJ기질은 경찰행정학과, 디지털영상학과, 보건바이오학과, 건축학과, 경호학과에서 선호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바이오학과는 ST기질과 NF기질이 동일하게 높은 선호경향으로 나타났다. 심리기능과 기질의 공통된 부분인 NF(직관적 감정형)유형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멀티미디어학과, 안경광학과에서 높은 선호경향으로 나타났으나 NT(직관적 사고형)유형에서는 심리기능 및 기질유형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학과별에 따른 각 유형간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E-I에서는 멀티미디어학과와 디지털영상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E유형이 높은 선호도로 나타났으며 S-N에서는 멀티미디어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S유형을, T-F에서는 디지털영상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F유형을, J-P에서는 항공관광학과만이 J유형이 높은 선호도로 나타났으나 P유형과는 1명(0.2%) 차이로 모든 학과에서 P유형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전체 10개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별에 따른 성격유형의 관련성으로 분석한 결과, MBTI 16가지 성격유형 선호도($\chi^2=164.680, p=.042$), 심리기능($\chi^2=49.148, p=.006$) 및 기질유형($\chi^2=55.00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또한 각 선호유형간의 차이에서는 E-I($\chi^2=25.798$, $p=.002$)와 S-N($\chi^2=24.305$, $p=.004$)에서만 학과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계열별에 따른 성격유형, 심리기능, 기질 및 선호유형에 따른 차이는 [표 5]와 같다. 세부적으로 계열별 성격의 선호 분포도를 살펴보면 사회계열 ESTP 52명(7.5%), 공학계열ESTP 35명(5.0%), 예체능계열의 경우 ENFP가 23명(3.3%)으로 높은 선호경향을 나타냈다. 성격별 심리기능으로는 사회계열(133명, 19.1%)과 예체능계열(54명, 7.8%)에서는 SF기능이 높은 선호도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67명, 9.6%)에서는 NF기능(직관적 감정)이 높은 성향으로 나타났다.

성격별 기질유형에서는 사회계열은 SP기질 115명(16.5%), SJ기질 113명(16.3%)의 높은 순서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은 NF기질이 67명(9.6%), 예체능 계열은 SJ기질이 62명(9.5%)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5].

따라서 계열별에 따른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16가지 성격유형의 선호도($\chi^2=46.853$, $p=.026$), 심리기능($\chi^2=23.988$, $p=.001$) 및 기질유형($\chi^2=29.661$, $p=.000$)은 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가지 선호유형을 살펴보면 사회계열, 공학계열, 예체능 계열이 모두 E, S, F, P유형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S-N($\chi^2=14.848$, $p=.001$)에서만 계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계열별 성격유형, 심리기능, 기질 및 선호유형 (N=695)

변수	분류	사회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전체	χ^2	p
		(n=349)	(n=214)	(n=132)	(n=695)		
		n(%)	n(%)	n(%)	n(%)		
성격유형	INFJ	10(1.4)	17(2.4)	10(1.4)	37(5.3)	46.853	.026
	ENFJ	30(4.3)	15(2.2)	15(2.2)	60(8.6)		
	INFP	33(4.7)	15(2.2)	14(2.0)	62(8.9)		
	ENFP	40(5.8)	19(2.7)	23(3.3)	82(11.8)		
	INTJ	28(4.0)	9(1.3)	11(1.6)	48(6.9)		
	ENTJ	32(4.6)	12(1.7)	6(0.9)	50(7.2)		
	INTP	19(2.7)	10(1.4)	5(0.7)	34(4.9)		
	ENTP	36(5.2)	15(2.2)	11(1.6)	62(8.9)		
	ISFJ	6(0.9)	11(1.6)	4(0.6)	21(3.0)		
	ESFJ	15(2.2)	12(1.7)	7(1.0)	34(4.9)		
	ISFP	2(0.3)	4(0.6)	3(0.4)	9(1.3)		
	ESFP	8(1.2)	8(1.2)	4(0.6)	20(2.9)		
	ISTJ	5(0.7)	3(0.4)	1(0.1)	9(1.3)		
	ESTJ	14(2.0)	9(1.3)	4(0.6)	27(3.9)		
ISTP	19(2.7)	20(2.9)	4(0.6)	43(6.2)			
ESTP	52(7.5)	35(5.0)	10(1.4)	97(14)			
심리기능	ST	95(13.7)	57(8.2)	41(5.9)	193(27.8)	23.988	.001
	SF	133(19.1)	55(7.9)	54(7.8)	242(37.8)		
	NT	31(4.5)	35(5.0)	18(2.6)	84(12.1)		
	NF	90(12.9)	67(9.6)	19(2.7)	176(25.3)		
기질	SP	115(16.5)	46(6.6)	33(4.7)	194(27.9)	29.661	.000
	SJ	113(16.3)	66(9.5)	62(9.5)	241(34.7)		
	NT	31(4.5)	35(5.0)	18(2.6)	84(12.1)		
	NF	90(12.9)	67(9.6)	19(2.7)	176(25.3)		
선호유형	E	227(32.7)	125(18.0)	80(11.5)	432(62.2)	2.647	.266
	I	122(17.6)	89(12.8)	52(7.5)	263(37.8)		
	S	228(32.8)	113(16.3)	95(13.7)	436(62.7)	14.848	.001
	N	121(17.4)	101(14.5)	37(5.3)	259(37.3)		
	T	126(18.1)	92(13.2)	59(8.5)	277(39.9)	4.218	.121
	F	223(32.1)	122(17.6)	73(10.5)	418(60.1)		
	J	144(20.7)	70(10.1)	45(6.5)	259(37.3)	4.851	.088
	P	205(29.5)	144(20.7)	87(12.5)	436(62.7)		

IV. 논의

본 연구는 일 지역 대학생의 성격유형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선호하는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법을 제공하여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대학생의 성격유형 선호도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다.

첫 째, 대상자의 MBTI 각 성격유형별 선호지수를 살펴보면 E유형, S유형, F유형, P유형에서의 성향이 확실한 선호분명도로 나타나 김영숙[1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16가지 성격유형 중, ESTP와 ENFP가 높은 선호경향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9]의 결과에서 ENFP가 높은 선호도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한국인의 대부분이 사고형과 외향형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유사하다[28].

또한 대상자의 성격 선호경향에 따른 성별의 차이에서는, 판단기능과 관련있는 T-F($\chi^2=14.478$, $p=.000$)지표와 생활양식과 관련있는 J-P($\chi^2=8.930$, $p=.003$)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T유형과 P유형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여학생의 경우 F유형과 J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즉, 남학생의 경우 사실과 논리적 결과를 중시하고 객관적이며 원리 원칙, 기준이나 규범을 중시시 한다(T유

형)[18]. 또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에 대해 대처하며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성향이다(P유형)[18]. 반면 여학생은 주변인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중시하고 사람들과의 조화와 우호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F유형).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하며 정리 정돈이 잘되고 스스로 통제 조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다(J유형)[18][29].

설지용, 박지윤[27]은 MBTI 성격유형 중 인식기능(S-N)과 판단기능(T-F)이 시각유발전위(Pattern reversal visual evoked potential: PR-VEP검사)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판단기능 중 F유형이 T유형에 비해 뇌파에 도달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짧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F유형의 경우, 감정이 조성된 후 이성의 여과없이 경험하게 되는 반면, T유형은 조성된 감정을 이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27]. 이는 사고형의 선호성향을 가진 학습자에게 있어 학습 시 시간분배 조율의 필요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김혜진과 김옥분[30]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및 학습과정 참여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이를 토대로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법이나 교수법을 적용한다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영임[31]은 대학생의 성격의 선호지표에 따라 영어 말하기 활동수행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즉, T유형의 학습자는 학습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실수가 있을 시 즉각적이며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F유형의 학습자는 직접적인 수정보다는 간접적으로 실수에 대해 수정해주고 칭찬과 격려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 또한 J유형의 경우는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수업을 선호하므로 수업과 관련된 자료나 계획을 미리 공지해 주도록 하며 P유형의 경우는 유연성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학습법에 다양성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18][31].

동일한 대상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으나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29]에서 T유형 학습자가 F유형보다 보상적 책략(추측하기, 한계 극복하기)을 유의미하게 사용하고, J유형 학습자는 P유형 학습자보다

사회문화적 책략(질문하기, 협력하기, 공감하기), 연습하기, 계획하기, 기억하기 책략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대상자가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 대상자 중 성별의 분포도가 차이가 있는 항공관광학과, 경호학과 및 경찰행정학과의 경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판단기능과 인식기능의 차이에 따른 교수법 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대상자의 학과별에 따라 성격유형, 심리기능 및 기질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학과 695명의 대상자의 MBTI 16개 성격유형 중 ESTP(14%)와 ENFP(11.8%)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한정아[32]가 3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ENFP가 가장 많은 선호도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김덕순[33]이 17개 학과 6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성격유형인 ISTJ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연구 시기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결과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ESTP는 활동가 유형으로 적응력이 강하고 다양한 활동을 선호하며 현실문제 해결력이 능한 유형이다[34]. 이들에게 적합한 진로분야로는 경찰, 마케팅, 세일즈, 건축업, 개인서비스업, 무역업이나 작은 사업관련 분야이다[34]. 이들 유형에게 효과적인 학습은 감각적 자극과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이므로 시청각 기구나 실험 재료들, 실제적으로 이용가능한 직접적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35]. 또한 이들에게는 계획되거나 틀에 짜여진 학습에는 부적절하므로[34][35], 제치있고 융통성 있는 학습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ENFP는 따뜻하고 정열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며 재능이 많은 성향으로 어려운 일에서도 타인을 도우며 행동하려는 성향이다[36]. 따라서 서로 팀을 이룬 브레인 스토밍이나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된 활동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35].

박영미[21]는 경찰행정대학생의 성격유형 중 가장 많은 선호성격 경향이 ISTJ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경찰행정학과의 경우, 이와 상반되는 ENFP의 선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경찰행정학

과의 경우 편입생이 포함되어 진행되는 학과이므로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바와 추후 비교분석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경찰행정학과를 비롯한 대다수의 학과에서 심리기능 중 SF유형이 많은 선호도로 나타났다.

미용학과 학생들에게서는 SJ기질과 SF기능이 높은 선호 경향으로 나타나[18]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서비스업과 관련된 미용학과의 경우 심리기능인 SF기능에서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SF기능은 인식을 할 때 감각기능을 사용하고 감정을 사용하여 판단하므로 학과의 특성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성격유형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J(판단형)유형이 P유형(인식형)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18]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여학생의 분포도가 많고 특히 J유형이 높은 선호도로 나타난 항공관광학과 학생들에게 선호학습법을 적용 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SF기능은 업무보다는 온정이나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동정적이고 친절하며[20] 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의사결정시 사람의 영향을 중시 여기는 성향이다[21]. 이러한 성향은 다른 기능집단보다 학습에 솔선수범하거나, 미래지향성, 창의성, 기본학습기술이나 문제해결기술이 부족한 편이다[37]. 따라서 자가학습시, 좀 더 주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표를 작성하여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 시 서비스 정신을 중요시 고려하는 학과에서나 본 연구결과에서 SF기능이 높은 선호도로 나타난 경찰행정, 경호학과, 보건바이오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경영학과, 항공관광학과에서는 더욱 더 SF유형의 강점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법이나 교수법에 적용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즉, 교수자가 학습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친밀성있는 학습법이 필요하며 교수자는 학습내용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교수법이 필요하며[38] 이에 대해 다양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성격별 기질유형에서도 학과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으며 SJ기질이 높은 선호도로 나타났다.

경찰행정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21]와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기질별 분포도[22]에서도 SJ기질이 가장 많은 선호도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의 조사는 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으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성격 기질별 유형에서도 감각-판단형(SJ)기질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25]으로 나타났다. SJ기질은 질서 정연하고 조직적이며 전통과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26] 헌신과 봉사하는 역할에 대해 주로 서비스업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므로[22]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최영임[31]은 성인 학습자의 성격유형별로 영어 말하기 활동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 중 정보차 활동(서로 대상자간에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아내는 활동)과 기질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특히 SJ기질이 정보차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SP기질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SJ기질이 정보를 오감으로 받아들여 목표를 설정하는 목적 지향적이며 결과과 판단을 재빨리하고자 하는 유형의 특성 때문이다[31].

SP기질은 구속받고 제한받는 것을 싫어하여 충동적 이므로[26] 다른 기질들보다 학습에 대한 애정이나 창의성, 문제해결기술 등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부족하다[31].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SP기질의 선호도가 높은 항공관광학과에서는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짧은 시간 내에서 집중하는 학습법이 필요하며[38] 이 중 학습자 중심의 학습인 TBL(Team based learning) 또는 PBL(Problem based learning)학습법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안충혁[35]은 5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성격의 기질에 따른 학습스타일에서 S-N, J-P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인식과 관련된 기능과, 생활양식의 지표기능을 중심으로 학습프로그램 개발이 의미있음을 뒷받침

해 주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학습성취도와 학습유형이 중,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이므로 직접적인 비교분석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서갑주[13]의 연구에서도 대상자가 상이하나 성격의 기질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기질의 SJ와 SP유형의 경우, 계획을 통한 책임과 성실한 수행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규범형’의 학습법을 선택하고[15], NT와 NF의 유형은 호기심을 통해 새로운 발견과 도전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는 ‘탐구형’[15]의 학습법을 선택했을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이는 기질에 따른 학습법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 째, 대상자의 계열별에 따라 성격유형, 성격별 기능 및 기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계열별에 따른 성격유형, 심리기능 및 기질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비교분석이 다소 제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선호유형에 대해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순주[26]는 공과대학생의 연구에서 공학계열의 심리기능 중 ST와 NF의 분포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실용지식 바탕의 원리에 대한 흥미와 논리성을 추구하는 전공의 특성에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계열별에 따른 8가지 선호경향을 살펴 본 결과, 정보인식에 대해 S-N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미섭과 지은림[3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대학생의 전공계열인 인문, 자연, 예능계열에 따라 성격 경향성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성격이 전공이나 학업성취도와 관련성이 있었으며 특히 인문계열에서 S유형이 유의하게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39].

이순주[26]는 성격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 J-P(판단-인식)의 지표 중 인식(P)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하였다. 즉, 공학계열의 경우 학업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환경수용태도인 생활양식에 관한 것이며 특히 판단형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체계적인 것을 선호하는 공과계열에서 적합하다[26]. 의사결

정에 있어서도 사고형의 경우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형과 판단형이 공학계열 전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반재호[40]는 전국 4년제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e-learning 학습양식(적극적 협동학습형, 독자적 자율 학습형, 환경 의존적 자기주도 학습형, 소극적 학습형)이 공학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학습자 성격 유형 중 J-P유형의 학습자가, 인문·사회계열에서는 S-N유형 성향의 학습자가 e-learning 학습양식 중 환경의존적 자기주도 학습형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선호도로 나타났다. 이 학습양식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함께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결과를 토대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해 교수자는 흥미 유발을 통한 동기유발과 함께 교수와 학습자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도법을 고려해야 한다[40].

이처럼 대학생의 대부분이 계획적, 체계적, 감각적이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향이 많으므로[39], 많은 선호경향으로 나타난 S유형과 J유형에 도움이 되는 자가 학습법을 모색한다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선호경향인 성격을 반영하는 학습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적절한 강의, 소그룹 활동, 역할극 등을 적용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학습자들의 성향에 따른 취약부분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학습법 및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16].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유형을 분석하여 개인의 선호경향에 적합한 학습유형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의 MBTI 16가지 성격유형 중 ESTP유형이 가장 많았고, 심리기능유형은 SF유형이, 성격기질 유형은 SJ유형이 많았다.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의 선호도에서는 판단기능인 T-F와 인식기능인 J-P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각 학과 및 계열별에 따라 성격유형, 성격심리, 성격기질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신입생들에게 전공 교과목별 자가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수법과 학습법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는 일 지역대학의 일부 학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학과에 따른 성격을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학과 및 계열별에 따른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2) 본 연구는 단순히 성격유형의 결과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이들의 성격유형과 학습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학습 성취도 및 전공 만족도 등의 연구도구를 적용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학습자의 성격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자가 학습유형 도움 매뉴얼 및 교수용 지도 매뉴얼을 개발하여 추후 효과검증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저학년 시기에 성격유형별에 따른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유형을 파악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법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임이랑, 오인수,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학습역량, 환경/지지요인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pp.285-309, 2016.
- [2] 서미옥, “대학생의 학업지연 원인 탐색:혼합연구,” 교육학연구, 제52권, 제1호, pp.273-301, 2014.
- [3] 임언, 곽운영, “여자 대학생의 학업중단 유형 분류 및 관련 요인 분석,” 한국직업교육학회, 제30권, 제2호, pp.231-248, 2011.
- [4] 이정미, 이길재,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35권, 제3호, pp.133-153, 2017.
- [5] 조범진,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관련요인들의 관계분석,” 청소년행동연구, 제17권, pp.1-18, 2012.
- [6] 손유미, 송창용, 임언, *대학생 핵심역량진단(K-CESA) 지원과 활용*, 기본연구, 2016-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 [7] 김형관, 신현석, 서민원, 황기우, “대학생의 학업성취요인 분석 연구: 대학정책의 변화를 위한 기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제1호, pp.169-186, 2002.
- [8] 유현숙, 고장완, 임후남,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력,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학습과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9권, 제4호, pp.319-337, 2011.
- [9] 전예원, *대학생의 개인 및 학교생활 변인이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0] 박성익, 김연경,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몰입요인, 몰입수준, 학업성취간의 관련성 탐구,” 열린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pp.93-115, 2006.
- [11] M. Ehman and R. Oxford, “Adult Language Learning Style and Strategies in an Intensive Training Setting,” *The Modern Language Journal*, Vol.74, No.3, pp.311-327, 1990.
<http://dx.doi.org/10.1111/j.1540-4781.1990.tb01069.x>
- [12] 윤혜경, *MBTI선호경향과 학습유형 및 학습전략의 관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13] 서갑주, “MBTI성격유형과 U&I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의 탐색적 분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24, 2016.
- [14] 김만권, 한종철, *학습문제 전문가 자료집*, 연우심리연구소, 2001.
- [15] 이운주, 지연정,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의 특성,” 아시아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pp.243-273, 2013.
- [16] 김선, 김주현, 허에라, “의과대학생 성격과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한 교육방법,” 한국의학교육, 제

- 17권, 제2호, pp.107-119, 2005.
- [17] 강은주, 임규혁, 한주희, “성격과 학습동기 및 학습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음악 전공생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연구, 제8권, 제2호, pp.21-33, 2010.
- [18] 최민영, *미용학과 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학습수행능력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9] 김영숙, “대학생 영어교육 전공자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영어학습의 장단점 인식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10호, pp.309-331, 2015.
- [20] I. B. Myers, M. H. McCaully, N. L. Quenk, and A. L. Hammer, 김정택, 심혜숙 번역,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form M: MBTI Guidelines for Utilization and Research*, 어세스타, 2013.
- [21] 박영미, “경찰행정대학생의 MBTI성격유형과 핵심역량,”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3호, pp.221-239, 2012.
- [22] 성화영, 최혜란,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NLP선호 감각유형, MBTI성격특성과 회복탄력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16권, pp.42-63, 2015.
- [23] 이영란, 김선희, 주민선,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72-192, 2013.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72>
- [24] 한영미, 김선희, “간호대학생의 MBTI성격유형,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8호, pp.124-134, 2017. <http://doi.org/10.5762/LAIS.2017.18.8.124>
- [25] 이영희, 이영미, 김동기,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제16권, 제1호, pp.179-196, 2006.
- [26] 이순주, “공과대학생의 MBTI성격유형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pp.189-212, 2013.
- [27] 설지용, 박병운, “MBTI의 인식기능(S/N), 판단기능(T/F)에 대한 PR-VEP 특성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5485-5491, 2015. <http://doi.org/10.5762/KAIS.2015.16.8.5485>
- [28] 모슬기, 김영숙, “한국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영어 독해 전략 연구,” 영어어문교육, 제15권, 제4호, pp.291-311, 2009.
- [29] 김연주, *성격요인이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전략 사용과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30] 김혜진, 김옥분,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지각된 학습성과,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차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6권, 제10호, pp.63-72, 2016.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10.22>
- [31] 최영임, *성인 학습자의 성격유형이 영어말하기 활동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32] 한정아, “MBTI에 의한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선호컬러 및 톤의 관련성,”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7권, 제1호, pp.641-652, 2011.
- [33] 김덕순, “MBTI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오산대학 학생상담실 내담자 중심,” 학생생활연구, 제3권, pp.1-20, 1998.
- [34] 양수진, *MBTI를 활용한 디자인교육방법에 관한 연구-학습동기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35] 안충혁, *기독교 교육방법론에서 있어서 성인의 성격유형과 학습 스타일 관계연구-MBTI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6] 이명미, *MBTI 성격유형별 글쓰기 전략: 글쓰기 능력과 효능감 향상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37] 신영애, 심혜숙, “성격유형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13권, pp.25-44, 2006.
- [38] 이태중, “학습자 특성중심의 학업지도 방안,” 창의력 개발연구, 제5권, pp.149-169, 2001.

- [39] 송미섭, 지은림, “대학생의 성격과 전공 및 학업 성취도간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학연구, 제34권, 제1호, pp.113-129, 1996.
- [40] 반재호, *계열별 대학생의(공학, 인문사회, 예체능)성격유형과 e-learning 학습양식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저 자 소 개

장 현 정(Hyun-Jung Jang)

정회원



- 2006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2014년 2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 만성질환